오늘의 게시판

제 15회 인형극과 함께하는 봄꽃 축제 오전 10시 20분 북구청 광장

행사 〈5일〉

▲남구보건소 경로당 무료 순회진료=오후 2시 사랑의 쉼터. 노인 80명을 대상으로 실시.

▲100만그루 나무심기운동=오후 2시 담양군 금성면 석현리 석현교.

〈6일〉

▲제 15회 인형극과 함께하는 봄꽃 축제 개막식=오전 10시 20분 북구청 광장. 괜지·마가렛·페츄니아·데이지·야생화 등 6만5천점 전시. 한지공예품 150점·토피어리 작품 150점·참숯공예품 100점 꽃꽂이 작품 100점·압화 작품 100점·포트아트 100점·시화 공예작품 100점·풍선장식 100점 등이 전시.

▲서구 시니어클럽 개소식 및 노인일자리사업 발대식=오후 3시 서구 치평동 공동사업장.

▲농부증후군(하우스병) 대상자 검진=오전 10시 나주시 산포면 등수리 여자노인회관. 나주시 보건소 의료진이 노인 80명을 대상으로 검진.

전시

▲난설 황정숙 서전=다음달 5일까지 금남로 4가 지하철역 메트로 갤러리. 예서와 행초서는 물론 전서, 초서, 해서, 한글 등 서체 전 부문에 걸친 65점의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박성휘씨 '우먼스토리'=10일까지 광주시 북구 일곡갤러리. '시집 가는 날', '새벽-달지다', '점지' 등 최근작을 전시한다.

▲김혜령 압화 기획전=10일까지 북구 동림동 우체국, 동구 조선대 우체국갤러리. 생생한 자연의 기운을 전달하는 액자, 다기, 가구, 악세사리 등 다양한 공예품과 어울린 압화를 선보인다.

▲2006 영·호남 수묵화전 '상소와 시가의 만남'전=4월13일까지 옥과 미술관, 이상열·노태범·권기철·허진·이형우·이구용·이민한·이철량·이철규·유기준씨 등 참여

▲'그림속 동물 읽기'전=8월20일까지 시립미술관, 하정웅 명예관장이 기증한 작품 중 동물이 등장하는 작품 45점 전시 062-525-0968

공연

▲금용웅 대금 독주회=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금용웅·박시양·김덕숙·박선옥·이현숙·박지용·김대선·고창길 등 출연, 대금정악·원장현류대금산조·창작곡 '아름다운 추억' 등 공연.

▲소프라노 주경휘 귀국독창회=6일(목)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슈베르트의 '실비아에게''비밀''줄라이카'등 공연.

▲극동방송 여성합창단 제 5회 정기연주회=6일(목) 오후 7시 목포 시민문화체육센터 대공연장.

역사속의 오늘

▲천도교 창설(1860)

▲오스트리아 지휘자 카라얀 태어남(1908)

▲독립운동가이며 시인인 한서 남궁억 세상 떠남(1939)

▲식목일 제정(1949)

▲윈스턴 처칠, 영국 수상직 사임 (1955)

▲미국의 장군 맥아더 세상 떠남(1964)

▲국방부, 전국 고교 대학생에게 군사훈련 실시 결정(1968)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무 '월귤' 설악산에서 발견(1971)

▲중국 장개석 총통 세상 떠남(1975)

▲초대 법무부장관 지낸 이인 세상 떠남(1979)

▲페루 동북부 지방에 진도 6.2의 지진 854명 사망 750여명 부상(1991)

News Quiz (뉴스 퀴즈)

6. 올해는 4대 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이번 지방 선거에서 표출될 호남 민심은 다가오는 2007 대선과 이를 둘러싼 정계개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지방 선거일은 언제일까요?

① 5월 31일 ② 7월 31일
③ 9월 31일 ④ 11월 31일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광주무등파크호텔 1일 숙박권 1매를 보내 드립니다.

보내실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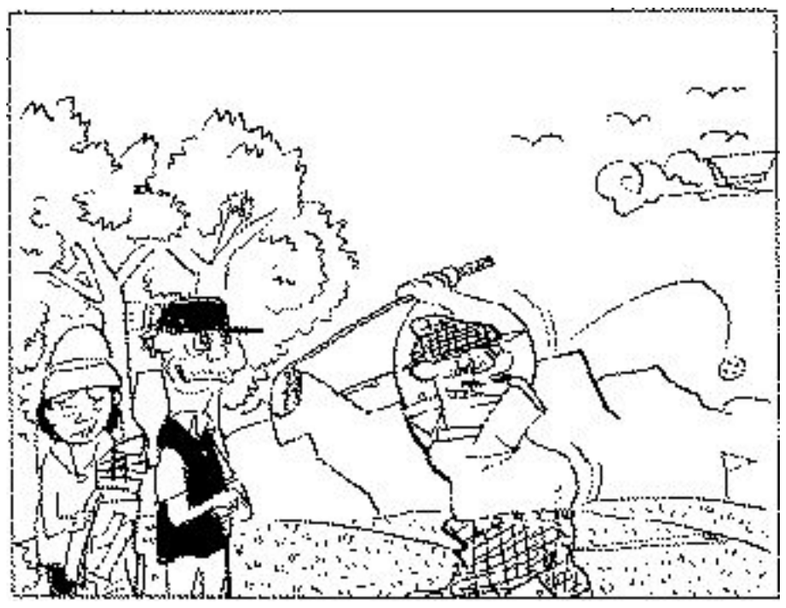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숨은그림찾기

< 14 >

▲ 지난주 정답

사자, 셔틀콕, 열대어, 야구모자, 못, 종이배, 팽이, 펜촉, 고추



찾아보세요 바늘, 볼링핀, A자, 못, 펜촉, 대접, 고추, 팽이, 셔틀콕

◀골프와 치매말기

1. 주중에 운동하면서 '주말날씨 참 좋다'고 말한다.
2. 깃대를 들고 다음홀로 이동한다.
3. 골프치고 돌아온 날 저녁에 아내보고 '언니'라고 부른다.
4. 손에 공을들고 캐디에게 내공 달라고 한다.
5. 캐디보고 '여보'라고 부른다.
6. 카트타고 라디오 틀어 달라고 한다.
7. 벙커샷 후에 채대신 고무래를 들고 나온다.
8. 탕안에서 그날 동반자를 보고 '오랜만이네' 라고 인사한다.
9. 목욕하고 다른사람 팬티를 입고 나온다.
10. 다른 단체팀 행사장에 앉아서 박수를 친다.

그림 속에 숨겨진 사물들을 찾아보세요. 찾은 사물을 그림에 표시한 후 매주 화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 상품권(2만원)을 드립니다.

▲보내실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당첨자

최현숙·광주시 동구 용산동
백혜정·광주시 동구 소태동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5일(음 3월 8일 甲子)

子 36년생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으니 분수를 지키라. 48년생 가도안정에 힘을 쓰라. 60년생 방풍림은 남자가 만들어야 효과가 있다. 72년생 이성 보다 친구를 만나라. 84년생 남을 높이면 자신도 올라간다. 행운의 숫자 : 15,45

丑 37년생 지속적인 안정이 있고 재복으로 가도안정을 찾는다. 49년생 집안은 평안하고 집 밖은 시끄럽다. 61년생 부부사이에 이해있는 대화와 자녀를 살펴보라. 73년생 이웃을 살펴보라. 85년생 개인의 절약은 국가 경제로 통한다. 행운의 숫자 : 20,45

寅 38년생 精神的 不便이 발생할 수 있고 부부갈등이 연발할 수 있다. 50년생 모든 일에 불편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 처신을 잘하라. 62년생 친인척의 변동으로 걱정이 생길 수도 있다. 74년생 계획한 모든 일은 잘 이루어지리라. 행운의 숫자 : 21,16

卯 39년생 친구 및 가까운 인사들로부터 기만을 당하거나 금전피해가 있다. 51년생 허황된 문서만 조심하면 대손은 없다. 63년생 만나는 사람마다 오래가지 못하니 선택을 잘하라. 75년생 세상에 극복되지 않는 어려움은 없다. 행운의 숫자 : 05,31

辰 40년생 어려워 보여도 쉽게 해결난다. 52년생 수하인과의 동업은 절대 금하라. 64년생 간장과 위장의 평안을 위해 건강검진을 받아보라. 76년생 새 문서를 친구가 가져오나 자세하게 검토해야 하리라. 행운의 숫자 : 08,25

巳 41년생 가득 찬 창고가 모두 내 것은 아니다. 53년생 정은 있으나 만나지 못하고 안타까울 뿐이로다. 65년생 모든 일이 순조롭고 내실있게 결정 난다. 77년생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겉과 속이 꽉 찬 결과가 있을 수다. 행운의 숫자 : 17,37

午 42년생 옛일이 나를 괴롭히나 큰 일은 아니다. 54년생 외부의 일이 가정에까지 소란사로 변하니 세심하게 살펴보라. 66년생 처음에는 고통스러우나 나중은 편하리라. 78년생 착실한 전진으로 꼭 성취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7,34

未 43년생 세 번 생각하고 말하면 미움은 없으리라. 55년생 옛 감정은 빨리 털어버리면 새로운 정이 솟아난다. 67년생 말다툼이 송사로 비화 될 수도 있으니 빨리 감정을 정리하라. 79년생 애인이 불안하니 용기를 북돋우라. 행운의 숫자 : 20,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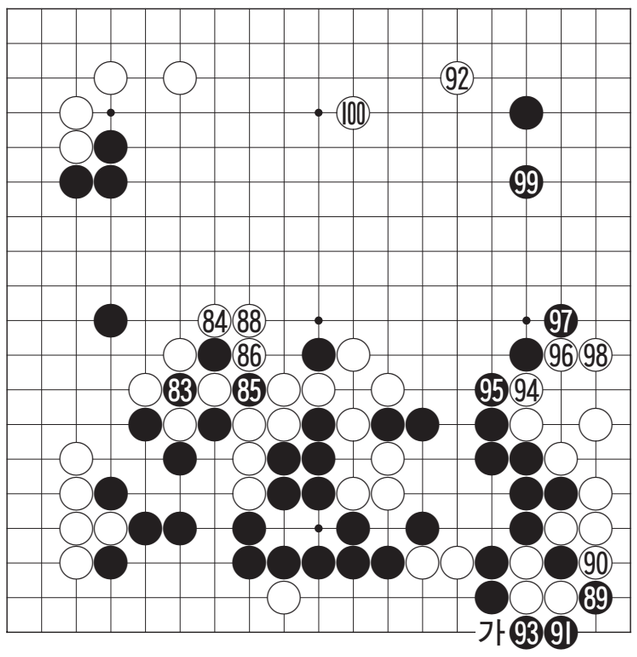
申 44년생 차 조심 사람조심. 56년생 미운 사람과 좋은 사람이 생긴다. 68년생 아늑한 보금자리이나 불편한 사람이 같이 있다. 80년생 자신과 가정, 가정과 직장사이에 불편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처신하라. 행운의 숫자 : 09,26

酉 45년생 협조자가 나타나서 새로운 일을 추진해간다. 57년생 적장을 포로로 잡은 격이니 큰 상이 있을 수다. 69년생 의외의 돈은 쉽게 사라진다. 81년생 독신자는 새로운 연인을 만날 기회가 생기니 준비하고 있으라. 행운의 숫자 : 14,16

戌 46년생 제사가 순조롭고 주변의 도움으로 신사가 발생한다. 58년생 하루가 평안하니 주위를 둘러보라. 70년생 자녀가 떨어져 살아야 할 경우가 생기지만 좋은 일이다. 82년생 고개를 숙여서 땅을 한번 살펴보라. 행운의 숫자 : 12,38

亥 47년생 협조자는 있으나 결과는 반반이다. 59년생 멀고 긴 여행으로 신뢰를 잃었으니 주변인들에게 믿음을 쌓으라. 71년생 과욕만 없으면 결과는 좋으리라. 83년생 보고 싶은 사람이 찾아오니 준비하고 있으라. 행운의 숫자 : 03,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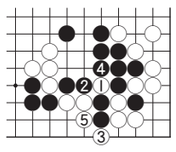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2005 바둑마스터스 삼국지

역 끝내기 본선 19국 제 6보(83~100)

白 조 한 승 (8단) 〈타이젬〉 黑 이 상 훈 (8단) 〈엠게임〉



〈참고도〉

이상훈 8단이 83으로 따내 다시 패를 시도했다. 조한승 8단은 84로 되몬 뒤 88까지 깔끔하게 후퇴하며 중앙을 두텁게 한다. 84로 85의 곳에 잇는 것은 무리다. 고수들이 금기시하는 빈삼각일 뿐만아니라 진짜 큰 패가 돼 버린다.

이 8단은 방향을 바꿔 우하귀 89를 두어갔다. 이 수는 작은 곳처럼 보이지만 참고도의 백 1로 끊고 5까지 넘어가는 수를 방비한 것으로 대단히 큰 곳이며 역끝내기다. 고수들은 이런 곳을 역으로 당하는 것을 매우 싫어 한다.

91 때 백이 93의 곳에 받아주면 흑이 '가'로 단수하는 것이 선수가 되어 참고도의 맛이 사라진다.

89도 큰 곳이지만 이 수로 상변을 차지할 수도 있었다. 조 8단이 먼저 우상귀 92로 걸쳐간 뒤 100으로 벌려갔다. 백의 바둑이 된 느낌이다.

〈오규철 9단·본지 바둑해설위원〉

생활의중심 SK telecom KT&G 전남본부

바둑소식

박영훈, GS칼텍스배 첫승

박영훈 9단이 지난 3일 한국기원에서 열린 제11기 GS칼텍스배 프로기전 본선리그전에서 조한승 8단에게 154수만에 백 불계승을 거두고 첫 승을 신고했다.

박 9단은 대국초반 선 실리 구도를 펼쳐 승기를 잡은 데 이어 종반 승부수를 던져 조8단에게 항서를 받아냈다.

같은 날 열린 대국에서 김승준 9단은 박정상 5단을 211수 끝 흑 불계승으로 제압했다.

현재 3판의 본선대국을 소화한 이대희는 이창호 9단과 이세돌 9단, 박영훈 9단 등 3인방의 대결 결과가 최종 순위 결정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굿모닝 잉글리쉬 <621>

I must be going

저 가야 되겠어요

A:I'm leaving, Jane. It's such a wonderful party!
B:Do you have to? It's still 9 : 00.
A:Well, I have lots of things to do tomorrow morning, so **I must be going.**
B:I see. Thank you for coming. I'll get in touch with you tomorrow.

A:나 가야겠어, Jane 정말 멋진 파티였어요.
B:너 꼭 가야 하니? 이제 겨우 9시인데.
A:내일 아침 할 일이 많아서 **가야겠어.**
B:알았어. 와줘서 고마워. 내일 다시 연락할게.

I'm leaving= I'm off.= I'm going.
It's such a wonderful party! = Great party!
It's still 9 : 00. = It's only 9 : 00.
I'll get in touch with you.
= I'll call you tomorrow.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오하이오 니혼고 <621>

急に入用(いりよう)なことができて。

급하게 필요한 일이 생겨서

A:あのう、申(もう)しわけありませんが、給料(きゅうりょう)の前借(まえが)り、お願(ねが)いできませんか?
B:ええ、こないだ、お給料を出(だ)したばかりじゃないか。
A:それが、その、**急(きゅう)に入用(いりよう)なことができて。**
B:仕□(しよう)がないな。今回(こんかい)は大目(おおめ)にみてやるか。

A:저-, 죄송하지만, 월급 가불 안 되겠습니까?
B:음-, 요전 월급을 준지 얼말 안 됐잖아?
A:그게, 그, **급하게 필요한 일이 생겨서…**.
B:어쩔 수 없군. 이번에는 너그럽게 봐 주지!

申(もう)し□(わけ)ない : 미안하다, 죄송하다
お願(ねが)い : 부탁
たばかり : 막 했다
入用(いりよう) : 필요함, 소용됨
仕□(しよう)がない : 어쩔 수 없다, 방법이 없다
大目(おおめ)にみる : 너그러이 봐 주다

〈광주 일본어 문화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

니하오 쭝구워 <368>

勇敢

별나다, 특이하다, 엽기적이다

A:[illegible]
[illegible]

B:[illegible]
[illegible]

A:[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Gǎnlǎn) 게으르다
[illegible] (dǎn) 용감하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다
[illegible] (yǒngqì) 정력, 기운, 기풍

〈리틀차이나 중국어전문학원〉
www.littlechina.co.kr ☎ 233-9582

한자 이야기 <238>

葬 禮 (장 례)

장사지낼 장, 예도 례

장례(葬禮)는 시신(屍身)을 장사지내는 예절이다.

장(葬)은 망(𠦂: 잡풀우거지다)+사(死)로, 시신을 풀 우거진 곳에 숨겨 버리는 것에서 '파묻다'는 뜻이 나왔다. 예(禮)는 시(示 : 제단)+예(豊 : 굽 높은 그릇)로, 잘 갖춘 제례를 의미한다.

고대에는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풀이 무성한 곳에 내다버렸다. 그러나 그 시신을 들짐승이나 새들이 훼손시키자 땅에 파묻는 매장(埋葬)을 하게 되었다. 불교에서는 육신(肉身)을 덧없는 것으로 생각하여 불에 태우는 화장(火葬) 즉, 다비(茶毘)를 행한다. 티베트에서는 시신을 산꼭대기로 옮겨가 독수리 밥이 되게 하는 천장(天葬)을 행하는데, 이것은 워낙 높고 추운 지역이라 매장을 할 수도 없고, 화장할 나무도 구하기 힘든 환경에서 나온 풍습이다.

근래에는 매장으로 인하여 묘지(墓地) 면적이 늘어나자, 화장을 한 후 유골(遺骨)을 수습하여 납골당(納骨堂)에 모시는 방식이 권장되고, 일부에서는 수습한 유골을 나무뿌리 주변에 묻는 수목장(樹木葬)이 의논되고 있다.

〈한예원(韓睿媛)〉
조선대학교 고전연구원 ☎ 230-6505